

전주세계소리축제와 함께 주말을 즐겁게

귀에 익숙한 음악부터 낯선 미지의 음악까지 판소리 공연 등 다채

전주세계소리축제에는 귀에 익숙한 음악부터 낯선 미지의 음악까지 세상의 모든 소리가 만개한다. 연휴 기간 동안 이곳에서 다양한 음악들을 섭렵하고 새로운 음악을 발견해 보는 즐거움을 느껴보는 어떨까?

세련된 연기와 원숙한 기량으로 무대를 장악하는 왕기석 명창은 <판소리다섯바탕>에서 '보성소리 강산제 심청가'를 들려준다. 전남보성지방에 전승되는 강산제 심청가는 박유전으로부터 시작됐다. 흥선대원군은 박유전의 소리를 좋아해 '내가 제일강산이다(소리를 제일 잘 한다는 의미)며 그의 호를 강산이라 칭했다. 이후 박유전으로부터 이어받은 심청가엔 강산제라는 수식어가 따른다. 고수 고경훈, /30일 오후 7시 모악당.

<더블빌-1>공연에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가곡과 아제르바이잔의 무감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무대엔 정가의 명인 조순자 선생과 성악 무감의 신에 어르주 알리예비야가 함께 오른다. 무감은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담고 있는 보컬음악이다. 명료한 음정 처리와 상당한 수준의 테크닉을 통해 묘사되는 아제르바이잔의 고유한 정서가 일종의 신비감을 자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1일 오후 2시 명인홀.

<한폴 프로젝트> '쇼팽&아리랑'은 폴란드 태생 작곡가 쇼팽과 대한민국 정서의 근간 아리랑의 조합 무대이다. 이는 폴란드의 마주르카 리듬이라고 불리는 3박자 리듬이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에 공통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영감을 얻어 시작된 프로젝트다. /10월 1일 오후 5시 연지홀.

젊은 아티스트들의 실험과 도전의 장



세련된 연기와 원숙한 기량으로 무대를 장악하는 왕기석 명창은 '판소리다섯바탕'에서 '보성소리 강산제 심청가'를 들려준다.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소리프론티어>은 올해엔 총 1800만원의 상금과 네덜란드 아메르스포르트 페스티벌, 대만 골든멜로디 콘서트행 티켓을 놓고 두 번째 달, 박종성 앙상블 K, 동방박사 등 총 3팀이 치열한 접전을 펼친다.

두 번째 달은 세계 각지의 민속음악을 재해석한 에스니 퓨전으로 돌풍을 일으켰으며, 2016 춘향가 눈대목을 음악극 형태로 재해석한 음반을 발표하며 화제를 모았다. 박종성 앙상블 K는 슬프고 화려한 하모니카의 다양한 매력을 전하는 팀을 서양음악과 재즈의 요소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소리·주제·장단·감성은 철저하게 전통을 고수한다. 동방박사는 한국음악의 제한적인 음계를 좀 더 자유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하며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멜로디, 리듬과 사운드로 유일한 음악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지녔다. /10월 1일 오후 7시 놀이마당.

월드뮤직을 향한 아주 특별한 여정 <월드뮤직 빅 파티>는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며 자신만의 독자적 음악세계를 구축해 온 작곡가이자 월드뮤지션 양방

언을 비롯해 프랑스 켈틱음악의 선두주자 안-광수 케메네르 파르티트, 헝가리 집시 음악밴드 로멩고를 한 자리에서 마주할 수 있는 공연이다. 양방언은 1995년 성룡 주연의 영화 '썬더볼트' 음악감독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에서 수많은 영화, 애니메이션, CF 등의 음악제작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는 'Prince of Jeju', 'Flower of K' 등 한국의 동양적 정서를 서양음악과 융화시킨 곡으로 대중들과 음악적 교감을 나누었다. /10월 1일 오후 7시30분 야외공연장.

<ISM 컬래버레이션>은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다국적 즉흥 음악가들과 한국 전통 음악가 강은일(해금), 차승민(대금), 박경소(가야금)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콜라보 무대다. 재즈의 본고장에서 출발한 깊이 있는 소울과 실험과 도전으로 똘똘 뭉친 국악 아티스트들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은다. /10월 2일 오후 2시 명인홀.

기아 독주로 뽐낼 수 있는 기량과 기교를 엿볼 수 있는 <산조의 밤>에는 아쟁 김일규, 가야금 지성자, 산조춤 예기우 김광숙 명인이 출연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역의 명인을 중심으로 전북지역 고유의 산조 세계를 조명한다. /10월 2일 오후 7시 모악당.

<더블빌-2>에선 주로 현대음악을 다루는 작곡가협회 회원들이 우리나라 전통 시나위를 소재로 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들을 들려준다. 이어 두 번째 무대에 오르는 조쉬쿤 카라테미르&오제르 오일 팀은 음악으로 타기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표현할 예정이다. /10월 3일 오후 2시 명인홀.

소리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폐막공연> 비트 인스퍼레이션은 2015 소리축제 최고의 화제작 '농악 Big Party'를 리메이크 한다. 이는 전국의 젊은 타악 연주자들의 절묘한 컬래버레이션 무대로, 한국 풍물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유망 신진그룹 9개 팀이 함께 한다.

기적놀이, 설장고, 버나놀이, 비나리, 단مان, 대북 등 다채로운 한국의 타악 연주와 연화가 어우러진다. /10월 3일 오후 7시 놀이마당

입장권 예매는 티켓링크에서 10월 2일 오후 5시까지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군산예술의전당은 오는 11월 말까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및 공연장에서 2017년도 기획공연과 전시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7년도 기획공연 및 전시작품 선정에 있어 관객의 의견을 수렴해 만족도 높은 맞춤형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일환으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더 나은 공연과 전시를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계획됐다.

설문조사 내용은 관객의 성향, 기획공연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장르 등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시민과의 소통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간조성과 고객지향적 공연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설문조사는 군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예술의전당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기획공연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뮤지컬과 콘서트 등 대형작품에 대해서는 기업체와의 공동기획을 추진해 다양하고 품격 높은 공연을 유치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진인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문화회관 주도의 일반적인 공연·전시에서 벗어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관객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불만족 해소를 통한 친근하고 편안한 공연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2016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2016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가 오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총 16개국 26편의 영화와 함께 길놀이(신관 사포 부임행차), 창극(광한루 연가Ⅳ 아매도 내 사랑아!), 씨네콘서트(고래야, '두 번째 달'),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복합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축제 첫날인 오는 30일 오후 4시30분부터는 2016 무형유산도시 남원시의 대표 문화관광 상품인 '신관 사포 부임행차' 길놀이가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부터 국립무형유산원까지 진행된다. 또 오후 5시20분 국립무형유산원 앞마당에서는 마당극과 다양한 관객 이벤트가 열린다.

이어 10월 1일 오후 1시에는 퓨전 국악 밴드 '고래야'의 영국 에딘버러국제페스티벌 참가기를 로드무비 형식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웨일 오브 어 다큐멘터리>의 상영과 '고래야' 공연이 씨네콘서트 형식으로 전개된다. 오후 7시부터는 '故 이매방 인문문화재의 예술세계를 새롭게 해석한 아티스트 그룹 콜렉티브 워크의 멀티미디어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2일 오후 4시에는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 OST 참여로 최근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에스니 퓨전 밴드 두 번째 달의 프로젝트 앨범 '판소리 춘향가'와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이 만나는 이색적인 무대를 연출한다. 3일 오후 7시30분에는 '창극 광한루 연가Ⅳ 아매도 내 사랑아!'가 공연될 예정이다.

축제의 모든 공연은 열두마루 대공연장과 야외 마당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30분 전부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티켓을 배부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누리집(www.ih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정부 추진 '공연티켓 1+1 사업' 악용 적발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수렁에 빠진 공연계를 돕고자 정부가 추진한 '공연티켓 1+1 사업'을 악용한 공연 관계자들이 적발됐다. 공연계는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공연티켓 1+1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1500여개 작품을 대상으로 300억원이 지원됐다. 관객이 공연 티켓을 구입할 경우 티켓 한 장을 더 제공했다. 추가 티켓 금액은 정부가 제작사에 지원했다.

대학로 극단 S씨는 이 점을 감안, 사재기를 통해 국가보조금을 챙겼다. 예컨대, 티켓 1000만원어치를 사재기하면 정부가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걸 노린 것이다.

결국 극단 입장에서는 돈 지출 없이 총 2000만원 가량의 티켓을 갖추게 된 것이다. 결국 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이 됐다. 극단은 이 티켓값을 깎아 다른 판매처에 넘겨 수익을 냈다.

사업 주관 판매처인 인터파크티켓은 동일 아이디 구매가능티켓 수량을 제한하는 등 사재기를 막기 위한 방안을 세웠다.

하지만 직원은 물론 배우, 공짜 표를 노리고 아이디어를 빌려준 일반인 등의 아이디어와 비반으로 티켓을 사들이는 묘수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보습학원이나 학습지업체 등을 찾아가 무료 공연을 보여주겠다는

속임수도 더해졌다. 다른 극단 관계자 B는 "친한 제작사끼리 아이디를 공유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허위로 티켓을 사들이는 정황을 단속 등에서 들리지 않기 위해 무료 초대권을 남발해 객석을 채우기도 했다. 1+1 티켓 판매량 대비 객석 70% 미달 시 사재기로 간주됐지만, 이들의 객석 채우기 행태는 이마저 비껴갔다.

덕분에 티켓 판매처의 예매 순위가 상승, 입소문까지 나는 효과도 거뒀다. 사재기를 대항해주는 브로커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 극단 관계자 A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확인했다.

B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미 사업 시행 전부터 공연 관계

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시 "관객이 들지 않았는데 정부의 지원금만 타갈 수 있다"고 예견한 공연 관계자 C씨는 "이미 이런 허점을 노리고 계획을 세우려고 했던 관계자를 봤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일부 공연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무었보다 높았다. 한편에서는 그러나 이런 행태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이커머스 등의 업체에서 제공하는 할인과 큰 차이가 없다는 불만 목소리도 나왔다. 인기 있는 작품에만 관객이 더 쏠리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도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공연계가 짐체를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던 것이다. /뉴시스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9월 30일>

▷쥐띠
48년생: 작은 일은 성취 가능하나 욕심을 부리지말라.
60년생: 타인과의 화합에도 중요하며 이성의 도움을 받아라.
72년생: 이성과의 관계를 주의하라. 구설수가 따른다.
84년생: 손재수가 따르니 먼저 커피라도 배물어라.

▷소띠
49년생: 의도하지 않게 상대편이 오히려 수 있다.
61년생: 매사가 어긋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73년생: 지금의 고생은 후에 결실로 다가올 것이다.
85년생: 동기간과 함께하면 힘든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호랑이띠
50년생: 남성은 여성의 조언을 구하라. 말속에 덩이 있다.
62년생: 타인의 이목을 너무 의식하지 마라.
74년생: 손재수와 실물수가 따르는 운.
86년생: 이성과 함께 진행하면 사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다.

▷토끼띠
51년생: 놀리거나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으니 마음을 다스려라.
63년생: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운이니 기본준비를 진행하라.
75년생: 처리하는 일이 잘 되다가 중간에 막히게 되니 대비.
87년생: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타협하라.

▷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자가 나타나니 주위를 살펴 보라.
64년생: 동기반으로 인해 성사된 일이 발생한다.
76년생: 뒷사람이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면 흔쾌히 들어줄 것이다.
88년생: 다루었던 사람과의 화해를 도모하기에도 좋은 운이다.

▷뱀띠
53년생: 배플면 덕이 쌓이니 후에 반드시 돌려받게 될 것이다.
65년생: 경쟁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운이다.
77년생: 인덕은 버리지 마라. 혼자 해결해나가야 한다.
89년생: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

▷말띠
54년생: 금전 지출이 심해지는 운이니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
66년생: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뒷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78년생: 경미하게 다치거나 아플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90년생: 정신이 뚜렷하지 않으니 매사에 집중력을 잃지 마라.

▷양띠
55년생: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을 조심해야 하는 운.
67년생: 문서에 결성이 비추니 계약을 하라.
79년생: 건강에 대해 신경써라. 유행성 질병을 주의해야 하는 운.
91년생: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마음을 다스려라.

▷원숭이띠
56년생: 다른 사람의 일어 나서지 말라.
68년생: 뒷사람에게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운.
80년생: 자신있던 일에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검토는 필수다.
92년생: 손이래 사람으로 인해 신경이 곤두서는 운이다.

▷닭띠
57년생: 매사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는 일찍 움직여라.
69년생: 작은 성과를 얻으려는 지에게는 좋은 운.
81년생: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운이다.
93년생: 시비수가 따르니 일시적인 것이다.

▷개띠
46년생: 손윗사람에게 신경써야 하는 운이다.
58년생: 금전운이 상승되는 운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라.
70년생: 타인과의 화합에 좋은 운이니 먼저 손을 내밀어보라.
82년생: 기본생활 일이 생기나 후반에는 풀리게 된다.

▷돼지띠
47년생: 타인에게 도움을 주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
59년생: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신경써라.
71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신경을 잃어 발생한다.
83년생: 식복이 따르는 운이니 구설수가 생기기도 한다.